

건축 그리고 건축사가 사는 법

Architect and practising architecture

조충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건축,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건축사,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이어야 한다.
최소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려야 할 것 아닌가?*

건축이 죽었다. 건축을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국민은 아니다! '건축사'라는 건축전문직을 아는 일반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물어보라. 지금 마주앉아 있는 나(건축사)를 무어라 호칭하고 주위사람들에게 무어라고 소개하는지 말이다. 기껏 '설계사'라고 부르는 것도 건축사들 스스로가 '건축설계사무소'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응대하는 것이리라. 그것도 모자라 어느 지방에서는 건축사자격증도 없는 사무장(실장)출신을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라 부른다. 건축사는 그냥 '소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건축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거나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건축'과 '건설'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비취진 건축사, 소위 '설계사'는 너무 쉽게 계획도면을 그려올 뿐 아니라 불법 시공할 수 있는 도면도 작성해주고, 무책임한 건설업자 앞잡이로 건축주 눈도 속이고, 배타주의에 편승하여 동업자도 외면하고, 건축관계법 속에 안주하는 등의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모른다.

건축사,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이어야 한다.

건축사가 '설계사'이고, 정부의 면허를 받아 '허가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 변화를 이끌지 않고 건축사법에 안주하여 그저 도면이나 그리고 허가를 받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건축'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미 '건축사'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이다. 건축주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최초상당자? 설계면적? 공사면적? 공간의 가치? 도시성? 사회공공성? 설계비? 건축비용? 허가부터 준공까지의 절차? 에너지 절약? 녹색건축? 월세? 투자대비 이익? 정부세제 혜택? 저리 용자? 자산가치? 도면과 다른 시공? 도면에 의한 재료제품의 시방에 따른 올바른 시공 감리? 허가 잘 내는 것? - 등등 계획에서 사용까지 원톱서비스 아니겠는가? 그 중에 최고 관심은 '공사비가 얼마인가?' 일 텐데 능력 밖으로 치부된다. 관심은 '허가연면적'이고, 그 다음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책임진다고 믿는 '감리'이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다. 모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자. '건축사'가 작성한 '허가도면'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료명도, 제품명도, 색깔도, 표면처리도, 기구명도, 디테일도, 시방도 없는 그 허름하기 짝이 없는 도면으로 무슨 공사비를 추출할 것이며, 무슨 감리를 할 것인가? 건축법의 취지는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견폐율과 용적률에 매달린 허가(신고)도면으로 건축주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것은 건축사가, 건축사협회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건축,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이 모르면 이끌어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홍보, 외부로 향해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만드는 월간 '건축사'지는 매 분기, 아니 계간으로라도 만들어 국민이 '건축사'지를 보고 건축을 이해하고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려야 할 것 아닌가? ▣